

2023.8.

VOL. **338**

AUGUST

8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말씀술루선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시편 57편을 쓴 다윗도 재앙의 날에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사방에 가득하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사람 같이 슬플 때에 이 아름다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사 간에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고백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 마음이 생기자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던 마음이 확정되자 새로운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시 57:7). 이렇게 고백하자 환경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가랑잎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두에 정박하여 단단히 밭줄로 묶였을 때,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은혜의 포구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본 세상은 다윗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조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고난받던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시인은 광야를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랑이 걱정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끝없는 구렁이와 같아서 수많은 것을 삼키고 삼켜도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욕망을 만족케 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추한 욕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도의 문을 열 때〉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마음이 괴로운 날의 선택/그 여자가 마음이 슬플 때/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위기 앞에 드린 기도/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심/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심/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그대의 마음이 문제다/새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그 밤에 떠오른 노래/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헤아리시는 하나님/기도가 하나님 아는 길이다/기뻐하며 사는 길 1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김남준 담임목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들어가는 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합니다(히 12:1). 이 경주는 당시 로마 시대 올림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도시와 고장의 명예를 짊어지고 달려야 했습니다. 질주하는 그 선수에게는 승리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히 12:2).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히 4:15). 배고픔과 가난함, 고통과 불편함, 그리움과 배신과 모욕 등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

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마치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히 7:25).

구약 시대 제사장의 수는 많았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일 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히 9:7).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막 15:38). 이것은 구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곧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역경에 처한 우리를 돕습니다.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

화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

믿음생활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

승리하게 하심

본문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원어로 ‘필요한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해야 할 때,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특별한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차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 길은 그 누구도 폐할 수 없는 영원한 길입니다.

시련이 큰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히 12:1).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곤고해졌

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죄인이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보좌에 이르는 새 길을 내셨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소리치던 양심의 송사와 율법의 정죄를 뒤로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맺는말

넘어진 자는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쓰러진 자는 영원히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애적인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7.30-8.1. 청년부 여름수련회

8.6. 구역장강의

8.13-15. 온가족여름수련회

8.20. 구역장강의, 임시당회

8.27. 구역장강의

8.28-31. 동서울노회 교육부 주관 목회자부부 세미나 설교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국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국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 나의 목자'
- 포항국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국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국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국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국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의 강가로'

🌐 인터넷 설교방송

- 국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여름성경학교(미취학부)후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김민혜 장년6교구
mine0544@naver.com



유아부 5세인 딸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아브라함의 인형극을 보고 너무 재미있었지만, 눈물도 아주 조금 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무서웠는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에서 눈물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멋진 믿음의 할아버지(?)로 기억을 하는 것 같다.

중학교 때부터 믿음생활을 시작하며 많이 들었던 이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만 아직도 엄마로서 육아가운데 마음이 요동하고 지칠 때가 많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신앙교육이 있을까 싶은데 참 쉽지 않고 좌절이 밀려올 때가 많다. 절대 순종과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부모가 아닐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게 된다. 어디로 떠날지를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말이다. 나였으면 처음부터 순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이곳을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큰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 삶의 나태함, 나의 의, 육신의 연약함 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용기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다. 믿음이 순종으로 검증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것이다.

딸이 5살이 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고집도 당연하다. 아직도 신발을 거꾸로 신을 때가 있고 옷도 뒤집어 입을 때가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귀엽기도 하지만 때를 써서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거꾸로 된 신발에 발이 들어가지 않아 바르게 신발을 신는 법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결국은 울음으로 끝나고 신발은 내동댕이쳐진다.



딸의 이런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끔 생각해본다. 바른 방법과 옳은 길을 알려주어도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으면 순종은 고사하고 경청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다시 묵상하며 딸과의 상황이 떠올랐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가나안 땅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뻐하시고 그 마음이 흡

족하셨을까. 부모로서 아이들의 연약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아이들이 성경학교, 등불학교, 사경회 등 많은 교회사역을 참여하면서 부모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다.

말씀을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참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보여주어야 할 텐데,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서 잘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잘 도울 수 있을까, 나보다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길 원한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또 그렇게 부모가 되어 그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길 기도하고 소망한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섬겨주신 많은 분께 참 감사하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니 늘 든든하다. 아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유아부실로 신나게 가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대견하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상상해 보며 축복한다. ☆

온가족여름수련회 특강

“여름수련회에서 만나요!”

이승제 목사(가까운교회 담임목사)

“저를 영광스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삶에서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 선교사’가 돼서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병욱 장로(대암클리닉 원장)

“이번 수련회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교제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암도 이기는 천국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암환자들을 보고 치료하면서 기적적으로 소생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 낫지 않는 병이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8월 15일 특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

본교회 리더십 세대교체 계획 발표

지난 7월 2일 담임목사님은 법적 기한보다 약 2년 정도 앞당겨 은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회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후임 목사로 김성진 목사님(아신대 교수)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회는 약 100일 동안 기도한 후, 10월에 있을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총의를 따라 이 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일 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투표도 진행되어 내년 6월 은퇴식 및 위임식과 함께 임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아웃리치

- 태국: 7월 28일(금) ~ 8월 4일(금)
- 라오스: 7월 30일(주일) ~ 8월 5일(토)
- 영국: 8월 30일(수) ~ 9월 6일(수)

2023 기도빌드업3 특별작정기도(진행중)

- 표어: 하나님을 바라라
- 기간: 10월 14일(토)까지 (6:00~24:00)
- 장소: 교회 또는 개인기도처
- 신청: 교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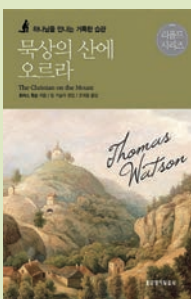
8월 추천도서

묵상의 산에 오르라

토마스 왓슨 (조계광 역) / 생명의말씀사

묵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활동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생명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줍니다. 때문에 묵상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묵상은 경건하며 신령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묵상을 통해 진리를 되새기지 않는 신자는 부정한 신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묵상의 방법을 설명하는 이 책은 바른 묵상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출판사서평 중에서)

아웃리치 후기 / 남은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양승정 장년4교구
sjyang7979@naver.com



아웃리치 가기 바로 전 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카센터로, 저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치료받으면서도 아웃리치가 생각났습니다.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 몸을 잘 보살피라는 말씀에 진짜 가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마음속에서 아니야, 가는 게 나에게 더 큰 은혜일 거야, 생각을 계속 하였고 직장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아픈 자를 사용하신다며 한 주 치료 잘 받으면서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는 원장님의 말씀과, 우리 선생님 빨리 나아서 아웃리치에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에 마음을 굳히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비도 많이 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전도하며 비가 그치고 전도하러 다니기에 좋은 날씨를 주심이 너무 감사하며 기도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는 마음속 깊이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간 처음 만남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 두 분이 제일 기억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속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할머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죽을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어 무엇 하느냐고 질문 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기에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기도도 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아웃리치에 가면 짝꿍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저는 추임새만 넣었는데 처음으로 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려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매일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비가 많이 온다는 날씨 예보에 어르신들 오시는 길이 걱정되었지만 그 걱정도 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고 계심을 경험하며 많은 분이 오기를 기도하고 어제 만난 두 할머니가 꼭 오시길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찾아간 아침, 할머니를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웠는데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 할머니를 설득하고 모시고 오

게 되어 얼마나 기쁘던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라고 알 것 같았습니다. 초청잔치의 찬양 인도를 맡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열어 주시길 그리고 즐거우면서도 복음을 잠깐이라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인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즐거워하시며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을 보며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웃리치에서 만난 여러 팀원의 섬김을 보면서 또 아웃리치를 통한 감사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이렇게 좋은 팀원들을 만남이 감사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은혜의 이야기 속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성주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내년의 아웃리치를 기대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로만 가득한 삶이 저에게 있기를 더욱 기도하는 아웃리치가 되었습니다. ☆

아웃리치 후기 / 역둔교회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



박선영 청년부
s-y0626@hanmail.net



열린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의 아웃리치 경험이 있었고 매번 아웃리치마다 주신 은혜들,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연결되지는 못하고 단회적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았다.

올해 순장을 하면서 당연히 아웃리치를 간다고, 그리고 갈 수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상황상 고민이 되었는데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부족하지만 깨달은 점이 있어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아웃리치를 선택함과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하고 응답을 듣고자 집중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좋았다. 건강 때문에 아웃리치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아웃리치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떤 선택들에 대해 좀 더 자유함이 생겨 가벼운 마음이 들어 감사했다. 또한 아웃리치를 가겠다고 결정한 이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였고 이에 함께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강원도 삼척 고랭지에 위치한 역둔교회

에 다녀왔다. 마을에서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고 또한 목사님께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였고 이에 복음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역둔교회 마을은 집들의 간격이 넓고 오르막에 있어서 이웃 간 왕래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다. 어르신들은 미소로 맞이해 주셨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시거나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여러 가구가 떨어져 있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였으나 특별히 한 가정이 기억에 남는다. 부부가 사는 가정이었었는데 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하시고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퇴원하신 지 2주 정도 되셔서 걷는 것이 불편하셨지만 말씀도 잘하시고 밝은 모습이셨다. 특히 아버님은 이렇게 회복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분 모두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고 영접기도도 잘 따라서 해주셨다.

정말 복음을 듣고 고백한다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복음 제시 후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였는데 눈물이 났다.

예전에 십자가에 대하여 마음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른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번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생각났고 영혼을 위하여 잘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글로 적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들을 알기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고자 다짐해본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데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아웃리치 후기 / 추동교회

가장 큰 위로



아웃리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함께 하는 공동체의 하나 됨과 열정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 장년 3교구 추동교회 전도대원들은 하나였고 사랑이었고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 받아 기쁨이 넘친 아웃리치였다. 추동교회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다.

이번 아웃리치가 처음인 성도들도 있었고 전도가 아직 어렵고 두려운 지체들도 있었고 전도를 꾸준히 해온 베테랑인 지체들도 있었다. 각자의 마음과 상황이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는 멋진 팀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 관계 열기를 잘하는 지체, 복음의 설명을 잘하는 지체, 옆에서 부족한 점들을 센스 있게 보완해 주고 기도해 주는 지체, 이 모든 상황을 꼼꼼히 메모하고 정리하는 지체, 마무리 기도를 힘있게 해주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돌아가니 전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기뻐다.

이전에도 전도해 왔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번 추동교회 아웃리치를 통해 맛본 것은 전도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전도대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호흡이 잘 맞

아웃리치 후기 / 대항사랑교회

복음의 비밀이 열매맺기를



이연화 장년4교구
iipooh@hanmail.net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경상북도 성주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천국초청잔치’라고 쓰인 파란색 현수막이 우리를 반겨주듯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5분 거리를 걸어 도착한 대항사랑교회는 하천 옆의 갈립길 위에 자리 잡은 한적하고 아담한 시골교회였습니다. 하얀색 네모반듯한 건물에 아치형의 문과, 철탑 위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착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네 개의 팀으로 나누어 마을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결혼 후 열린교회에 등록하고 아웃리치는 처음이기에 전도하러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이 긴장되고 떨렸지만, 도착 예배에서 들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수동 마을을 맡게 된 우리 팀은 장년 4명과 청년 2명으로 구성되었고 마을을 두 팀으로 나누어 전도하였습니다. 함께 전하시는 집사님들은 준비된 전도자 같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걸음을 내디디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부터 가가호호 방문하

며, 삶의 고단함을 들어 드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습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 옆에서 손자와 자식같이 손을 잡아드리고 환하게 웃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의 모습 역시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혹여나 귀가 어두워 못 들으실까 봐 여기저기 살펴며 둘러보고, 어두운 밤은 동네 개들이 다 짖어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던 팀원들의 열정과 섬김은, 동행하는 저에게도 처음 뵈는 어르신들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영혼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초청잔치를 하면서 약속된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교회에 걸린 현수막의 글귀처럼 진짜 ‘천국초청잔치’를 열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석을 약속한 분들이 오시지 않자 여수동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 봉고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마지막 이동 차량을 놓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회관에는 오셨지만, 참외밭 하우스 통을 열러 가야 해서, 무릎이 아파서, 타지에서 자녀가 왔다며 발걸음을 돌리는 어르신들을 보며 누가복음의 천국잔치 말씀이 떠올라 천국으로 가는 잔치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청잔치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예배를

드리고 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는 도리어 저희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대항사랑교회 고정규 목사님은 20여 년을 들고 다니며 전도하셨다는 보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패종시계의 추, 돋보기, 고무줄총 등등 하나하나의 쓰임을 설명해 주시는데 목사님 구령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인 사정으로 10여 년 동안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시고 건강과 코로나 등의 이유로 공적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준 아웃리치 팀은 지치고 쓰러져 가는 자신에게 아합왕을 피해 그릿시냇가로 숨은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와 같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고마워하시니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지역교회를 살리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지역교회가 영혼을 섬기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웃리치 후기 / 신항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



김보경 장년6교구
keeum@naver.com



청년부 때부터 아웃리치에 종종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장년부로서 처음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웃리치가 오랫동안 없었기에 마음을 전도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컸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끌어주시리라는 마음으로, 6시간을 차로 달려 광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신항중앙교회에 도착하여 저희 부부는 따로 조를 이루어 갔기에 남편은 어치마을로, 저는 신전마을로 전도를 준비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이었기에 저희에게 주어진 전도시간은 총 네 번이었고, 전도가방에 전도물품과 말씀종이를 챙기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마을에 꼭 임해주시길 소망하며 각자의 마을로 출발하였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방문할 집 번호를 정리하고 마을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항중앙교회 인근 마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사리를 산에서 채취하는 일을 하셔서 대부분 집은 비어있었고, 홀로 집에 계시는 할머니를 뵈게 되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한동안 가지 못한 할머니는 말씀을 들으시며 가만히 손을 모으셨고, 전도대원들은 함께 할머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농사를 마친 주민분들을 뵈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못 만났던 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고된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지 ‘그냥 가세요’, ‘교회 다니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하시며 울타리를 치시는 모습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움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주민분들이

아침 일찍 산에 나가 밤에 돌아오시게 된다면, 초청잔치 때까지 만나 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둘째 날에 계속 비가 와서 주민분들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계시기를, 그리고 초청잔치 전에는 비가 기적같이 그쳐서 초청자들이 교회를 방문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전 날 기도처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열른 마치고 세 번째 전도를 나섰을 때엔 집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을 뵈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니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으나 가부장적인 집안의 딸이라 배우도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의 가정을 섬기면서 자녀의 출세만이 삶의 자량이 되어버린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고, 들으시는 표정에서 복잡미묘함을 느꼈습니다. 초청잔치에 모시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기도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다시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였습니다. 보슬보슬 내렸던 비는 초청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기적같이 그쳤고, 교회 외부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즐겁게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한 곳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시지는 못하였지만,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주시리라 소망하며 광양 땅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날씨가 주관하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아웃리치에 감사하였습니다. ☆



조현주 장년3교구
baekkhap@naver.com



아서 그런지 가가호호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서 걱정했지만 전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았다.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환경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만난다는 것이다. 이번 추동교회 전도 초청잔치는 조금 특별했다. 66세이신 집사님 두 분이 공연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늘 청년들의 연극이나 워십 위주였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소천하시고 혼자 되신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 외로운 시간을 이겨 내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누구보다 아름답게 영혼을 섬기시는 집사님의 간증과 찬양은 우리 모두를 울렸다. 그리고 영적 내공이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60대 집사님의 춤 찬양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선포된 박재현 목사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복음은 능력이 되어 초청잔치에 참여한 모두를 설레게 했다. 식사 후 대기시간이 길어서 걱정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았고 좋아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주방 팀에서 초청잔치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 몸이 편찮아서 오지 못하셨거나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전도대원들이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해 주었고 음식이 남은 분들은 갖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도시락 뚜껑이 있으니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다. 박재현 목사님이 그러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기쁨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전도 여행은 이 기쁨을 맛보기에 충분했고 그 기쁨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 내년 아웃리치가 벌써 기다려진다. ☆

아웃리치 후기 / 문법교회

가장 좋은 여행



김혜정 장년5교구
hjking17@dreamwiz.com



열린교회에 나온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웃리치는 처음인 성도입니다. 교회에 온 첫 2년은 많은 분이 전도하시는 걸 보며 특별한 분들인가 보다 했고, 다음 3년은 믿지 않는 남편과 어린 자녀를 핑계 대며 숨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난 올해는 감사하게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충북 괴산으로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아웃리치 동안 줄곧 확인했던 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모든 부족한 생각을 감사로 이끄셨습니다.

첫 준비모임에서 영정사진 이벤트를 도와줄 지원자를 찾길래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1인 1역할인 줄 알고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했습니다. 나중에 팀 구성표가 나왔는데 제가 전도팀이 아니라 영상팀으로 따로 배정된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 가면서 영혼을 만나는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후방에만 있게 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넘쳤던 오지랖을 후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 엉뚱하게 새치 염색약을 가져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상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용기를 주셔서 자신이 없어 조용히 숨겨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치염색은 성공적이었어요. 염색이

마음에 드신 이장님은 사모님을 보내고, 사모님은 남동생을, 남동생은 부인을 교회로 보내는 식이 되었죠. 입소문을 듣고 오신 주민분들이 헤어 캡을 쓴 채 30분 동안 복음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즐겁고 깊은 교제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염색을 안 하는 시간에는 전도팀과 함께 다녔습니다. 전도 지침 중 쉽게 포기하지 않기, 논쟁하지 않기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기본이구나, 걱정하며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든 집에서 환대받았어요. 문법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냥 프리패스였죠. 그 환대는 현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20년 넘게 해오신 섬김과 봉사가 바탕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문조차 못 여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가져다드리고, 자식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셔와 섬기는 분들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농촌 교회를 도우러 간 줄만 안, 절없는 저를 오히려 그분들께 배우게 하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자기의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겨우 며칠 전에 영접하셨죠. 거칠게 살아온 세월애 매여 소망이 없이 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신 '아멘'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혹시 그렇지 않다면 부디 건강하셔서 내년에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아웃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좋다고 간증하시는 걸 보며 궁금하기는 했어도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확신에 차서 다른 이에게 권유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요 4:42).

가장 좋은 여행은 비싼 여행이 아니라 값진 여행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초대하셔서 직접 보게 하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내년에도 있을 아웃리치를 기대합니다. ☆

아웃리치 후기 / 대산교회

아웃리치 전과 후



서하민 청년부
mint05129@naver.com



5월 27일부터 사흘간 충청남도 금산으로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어렸을 때 한번 다녀온 것 말고 정식으로 간 아웃리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기 전부터 성극 연습, 율동 연습 등으로 바빴는데, 정작 전도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직 기도로 해낸다는 마음으로 당차게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 전도할 때 나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형설수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오히려 혼란을 줄까 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장로님과 집사님만 복음을 전하시고 나는 옆에서 열심히 호응했다. 다음 아웃리치에는 전도 연습을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에서 부진했으니 초청잔치에서 활약하자는 마음으로 잔치에 임했다. 잔치는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최대의 미소와 큰 몸짓으로 율동했다. 나름의 대형과 구성을 가지고 중간에는 복도로 뛰어가 어르신들 옆에서 춤추고 박수도 치며 신나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바로 뒤에는 청년들이 준비한 성극이 이어졌다.

다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제스처와 성량을 보이며 열연을 펼쳤다. 모두 실전과였네, 하고 혼자 웃었다. 전도사님의 설교까지 해서 무사히 초청잔치를 마쳤다. 밥 먹을 새도 없이 초청잔치 준비해서 잔치하고, 밤에는 사진 뽑아 액자에 넣고, 다음날엔 오신 분들 찾아뵙며 사진 전달까지 바쁘게 지나갔다.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3일이였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기절할 정도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아웃리치에 다녀오고서는 길에 지나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붙들고 전도해야 할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평소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대해도 그리 편하진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편하고 친근해졌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좋은 게 훨씬 많았지만 반성해야 할 것도 있었다. 전도할 때 가정에 한 명이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이면서도 그동안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했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선 의심이 들었다. 정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을까? 잠시 든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할 일들과 기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웃리치 가기 전과 아웃리치에서, 그리고 다녀와서까지 나의 의심에 응답해 주셨다. 가기 전에는 S언니를 통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찬양팀에서 지나가듯 내뱉었던 단어를 언니는 기억하고 있다가 곡으로 만들었다. 언니가 만든 찬양은 너무도 근사했다. 아웃리치에서는 전도사님을 통해 응답받았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던 길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은 뜬금없이 나의 진로에서 이끌어주는 선배나 스승이 있는지를 물으셨다.

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입시 때 레슨 선생님께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며 갑자기 울컥했다. 전도사님은 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입시가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 순간 사르르 녹는 경험을 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는 E언니에게 아웃리치에 대한 후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언니는 작년에 내가 언니의 순원일 때 나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본인에게 올 복이 있다면 나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았다. 스쳐 지나간 생각에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았고 너무나 과분한 사랑들이라 감격했다. 그 모든 이들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기에 더 감사했다. 어쩌면 아웃리치 사역에서 받은 은혜는 아닐지 몰라도 아웃리치를 다녀옴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은혜였기에 잊을 수 없는 아웃리치가 될 것 같다. ☆

새가족

▶▶ 장년

서영석(89) 송지훈(88)
김진유(93) 김은희(78)
김한실(50) 이육남(62)
서귀향(57) 우복순(68)
김영민(85) 박송희(82)
유하은(93) 김영은(82)
신태호(86) 정재훈(76)
전하정(89) 전성희(78)
박징용(78) 유병배(86)
김나래(86) 이하연(87)
배순근(60) 장정자(34)
배정희(63)

▶▶ 청년

김주영(93)
류시민(03)
정지원(여 83)
유안진(93)
정지원(남 84)
류태영(95)
장하연(86)
장든이(89)

만남 품은 열린교인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김미희 장년5교구
doll8720@naver.com

모태 신앙인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었다. 네 식구가 동그렇게 모여 앉아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가정예배는 일상이었고, 그렇게 자라왔던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냥 습관처럼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란 생각으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렸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열린교회에 먼저 다니면서 교사로 봉사하며 청년부를 지냈던 언니의 권유로 열린교회를 소개받아 나오게 되었다. 구역모임이 없었던 작은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이 걱정되었는지 언니는 구역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였고 나도 영적 회복을 위해 결심하고 열린교회에 등록한 것이다. 열린교회는 새신자반, 성장반을 통한 체계적인 과정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의 생활은 나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고 깊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개인 묵상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목사님의 저서 <게으름>을 읽으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지난 행동에 대해 뉘우치게 되었고 나의 신앙생활과 마음가짐을 다시 되짚게 되었다. 청년부 시절 순모임을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던 시간은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았던 옛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갈 수 있던 시간이었다.

그 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해준 구역식구들의 기도는 띄엄띄엄 교회에 출석하던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점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목사님께서 매년 5월 가정의 달이면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성경적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써 집에서 각자 위치에 맞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였고, 이 부부관계 위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여야 하는 자녀 양육을 실천하자고 결심할 수 있었다.

열린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상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거나 궁금했던 부분은 교구 교역자께 여쭙보고 해결하면서 신앙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아무 지식 없이 그저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신학적 지식의 뼈대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며 신앙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게 해주었다. 이 가운데에서 함께한 구역모임은 개인 경건생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였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는 나에게 놀림이 되는 주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한 삶을 잇은 채 방황하고 세상의 유익을 좇으며 살았던 나의 20대의 생활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내 자녀에게 물려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하던 터에, 말씀을 물려주면 큰 유산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와 천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에게 묻고 대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기도하면, 다음날은 아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때로는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고 있으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아이는 “이거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불러요.”라고 하며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기쁨을 누렸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을 자녀 세대로 잇기 위해서 매년 비중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회심집회는 매우 고마운 시간이다. 매년 이때마다 부모들은 세상적 관점의 양육 목표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일차적인 관심을 갖도록 촉구받으며, 자녀들은 실제로 회심에 필요한 성경적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심집회 후 아이에게 “전도사님께서 우리 수현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걸 깨달았어?”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는지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항상 내 옆에 살아계심을 느껴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기도시간에 본인의 마음이 뭔가 모를 뜨거움으로 가득 차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기도의 어려움이 있는 주변 친구를 보며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해줬다고 한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렇기에 나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놓쳐서는 안 되겠고 게으른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 열린교회와 지체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도 지금 목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고 싶다. ☆

곰곰이 생각

종교는 뽀뽀함이다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그토록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토록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뽀뽀하게 우상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나의 행복이 우상의 손에 있다는 듯,
그 품에 달려갑니다.



참된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커 보일수록
자신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갈수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욕망이 발각될수록
뽀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야단치는 엄마에게 용서를 빌듯,
그 품에 달려듭니다.



당신은 어떻게 뽀뽀하신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찬송가 280장)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2023
온가족여름수련회



GBS
미움에 관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The God Who Tests Me

그러나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특강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승제 목사(가까운교회 담임목사)

암을 이기는 법
이병욱 장로(대암클리닉 원장)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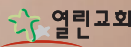
함부영 간사
(플레이트워십 찬양인도자)

뮤지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조이피플)



8월 13일(주일) ~ 15일(화)

장소 광림수도원
강사 김남준 담임목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수민
전도사 곽해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진산 최영광 김진하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혜선 조일권

파송선교사

- A국: 4 units, B국: 1 unit,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中国人礼拜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